

#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 미래 활짝 필 것



영의 효과성도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서 교육감에게 지난 1년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시간이었다. 이에 서 교육감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전북교육의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 Q. 먼저 취임 1주년 소감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침체된 전북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14개 시군을 찾아가 교직원, 학부모, 학생뿐만 아니라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을 만났습니다. 전북교육을 바꿔달라,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려달라, 작은학교를 살려달라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 맞춤형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을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매년, 매월 그리고 날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 전북교육을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 Q.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 취임 후 1년 동안 도민들의 관심 속에 전북교육가족과 합심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먼저 전북미래교육의 메카가 될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028년까지 약 479억원을 투입해 전라중 이전 부지에 건립되는 미래교육캠퍼스에는 △미래기술체험관 △미래진로체험관 △미래교육관 △공유관 △e-스포츠관 등이 들어서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키워갈 것입니다. 또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된 것도 매우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학생인권과 교육주체들의 인권 보호를 함께 담고 있는 조례는 전국 최초이기 의미가 더욱 남달랐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북학생의회도 설립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인사제도상 불합리와 폐단을 바로잡아 교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제도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농촌유학 규모를 확대하고, 또 공동 통학구형 어울림학교의 시·군 경계도 허물었습니다.

### Q. 기초학력 향상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 지난 3월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교실 내 학교 안, 학교 밖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69개의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에서는 1수업 2교사제가, 15개 협력지원센터에서는 학력지원단을 운영해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뿐 아니라 학교로 직접 찾아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등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관리할 수 없었던 난독·경계선 지능 의심학생 239명이 진단을 신청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동안 이 학생들은 제대로 된 진단과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확히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교육 및 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682개의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부진 원인별로 학습지원, 정서지원, 건강지원, 교육관계지원, 가정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습결과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 517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여 명의 학생들이 맞춤형 개별지도 받고 있는데, 소수 인원으로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학생의 기초학력 회복 및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학력 1차 향상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7월 말에는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운

### Q. 수업혁신을 위한 교사의 노력에 대해

- 교사가 바뀌면 수업이 바뀌고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뀝니다. 수업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일상적인 수업 공개와 나눔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혁신을 위한 교육혁신공동체와 창의·융합수업실천학교 등을 운영해 현장의 교사들이 공동연구하고, 공동실천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혁신과 교실혁명을 위해 하반기부터 스마트기기와 칠판이 도입되는데 사용할 줄 모르는 교사가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도교육청과 교육연구원, 미래교육연구원, 교육지원청 등 모든 기관이 에듀테크 관련 연수에 집중해서 6월 말 현재 8,300여 명이 참여해 연수를 받았습다. 또한 자기주도적 창의·융합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사들의 수업심장에 필요한 분야에 수업특강과 맞춤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스마트기기와 스마트칠판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고 내년 우리 학생들의 수업도 확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Q. 진로진학지도 방향은?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생 개인 맞춤형으로 진로진학 지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진로진학지도도를 해야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최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바로 진로진학지도였습니다. 그만큼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진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북에서는 기초·기본학력을 포함해 대입 진학지도도 소홀히 여겼습니다. 진로진학지도 강화는 전북교육 대전환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올해부터는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게 진학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진학지도지원단도 확대했습니다. 최근 가장 호응이 컸던 것은 입시설명회입니다. 우리는 입시설명회를 수요에 따라 세분화했습니다. 이공계 특성화대학을 포함한 특수목적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설명회, 또 수도권 주요 대학, 의약계열, 전북권 주요 대학

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하려면 첫째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 되고 스마트기기를 지급해야 합니다. 교실에는 전자칠판도 구비해야 합니다. 이번 2학기부터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와 스마트 칠판을 보급합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6만5,000여 대, 스마트칠판 3,100여 대를 각각 보급합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나머지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는 약 8만 대를, 스마트칠판은 3,800여 대를 추가로 보급합니다. 스마트기기와 칠판을 동시에 보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내년까지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100% 보급해서 2025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 “ 미래교육캠퍼스 설치 교육부 심사 통과 학생-교육주체 인권 보호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매우 뜻 깊은 일

### 하반기 학생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강화 전북에듀페이드 지원

Q.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해결책은?  
-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난제는 지역소멸입니다.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는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거의 모든 지역에 닥친 현상이 됐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전교생 60명 미만인 학교가 초등학교 205교, 중학교 85교, 고등학교 20교로 총 310교나 됩니다. 전체 학교의 약 40%입니다. 이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작은학교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지역의 구심점이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농촌을 농촌은 도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미래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공존과 상생을 작은 학교 정책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 Q.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에 대해

- 지난 10년 동안 학생인권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권리와 자유 행사가 다른 친구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교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는 학생 교사 행정직원, 공무직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분들의 인권보호도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이 침해받았을 때 이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피해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은 학생인권대로, 교권은 교권대로 존중돼야 합니다.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생활지도도 어렵습니다. 교사의 무력감은 학생 방임과 방치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교권 보장 없이는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 Q. 전북학생의회를 끔은 이유는?

- 전북교육청의 모든 정책 중심에는 학생이 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전북학생의회를 끔은 이유입니다.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있어 학생이 주도

하고 학생이 제안하며, 학생이 참여하는, 살아 있는 민주주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의 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교육 주체로서 교육정책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생이 참여함으로써 학생중심 학교문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열린 학생의회 첫 정기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이 가운데 학생회장단 선거 공약 이행비 지원 안건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학생 등·하교 교통비를 지원해 달라는 제안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교육재정 여건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도청·14개 시·군간 재원 분담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논의해볼까 합니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당사자들이 직접 요구한 것입니다. 고 3월 학력평가가 교육과정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부터 희망 학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본회의 안건 상정 과정들이 모두 처음이다 보니 서툴고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해내는 우리 학생의원들의 모습에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Q. 글로벌 학생 해외연수에 대해

- 올해 학생 해외연수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도내 초·중·고 학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합니다. 상반기에 약 500명이 다녀왔고, 방학과 하반기에 약 2,000명이 다녀올 예정입니다. 학생 해외연수는 해외 문화체험, 해외 현장체험학습, 글로벌 캠프, 글로벌 인턴십 등으로 구분되는데, 공정한 학생 선발과 사전연수에 힘을 쏟았습니다. 해외연수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문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사전에 공부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전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김제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 5월 김제시 자매도시인 일본 기쿠치시와 오사카를 방문했습니다. 김제의 중학교들과 기쿠치시 중학교가 그동안 화상교류를 해오다 이번에 학생 해외연수를 통해 직접 방문까지 했습니다. 정읍 무주 순창 익산 등의 학생들도 일본, 싱가포르 역사탐방과 진로체험을 다녀왔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도 학부모님과 함께 싱가포르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글로벌 인턴십, 글로벌 수학캠프, NASA 글로벌 캠프, 해외 문화체험이 호주를 비롯한 미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이뤄집니다.

### Q.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두드림학교, 교과보충 프로그램 등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기초학력은 세 차례 향상도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운영과 지원의 효과성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와 스마트칠판 보급도 이뤄집니다.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설치하고, 스마트기기 활용 연수와 수업혁신에도 속도를 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북에듀페이드도 지원합니다. 전북에듀페이드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공평하게 배우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 위한 것입니다.

### Q. 앞으로 전북교육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침체된 전북교육을 살려나가고 명령하신 전북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미래를 살아갈게 될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을 생각하면 늘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지난 1년은 전북교육 대전환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남은 3년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활짝 열겠습니다. /장은성기자